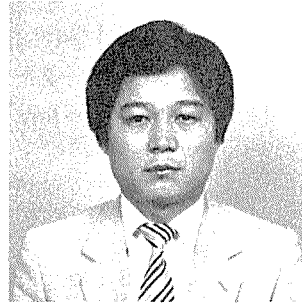


揮発油 特別消費税 내려야 한다

李 彰 圭
(油公 업무과장)



1. 우리나라 기름값은 과연 비싼가

오르는 것으로만 알았던 기름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지난 86년 2월이후 몇차례에 걸쳐 내린폭은 무려 37.2%나 됩니다. 산업도 가계도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으며, 적으나마 값을 낮추는데 기여한데 대해 우리 업계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가격이 계속 내림에 따라 우리나라 기름값은 인근의 어느 경쟁국보다도 싸졌습니다. 輕油 하나만 보더라도 臺灣에 비해 32%, 日本 보다는 56%나 낮아 國際競爭力까지 함께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이상은 지난 6월 8일 石油製品가격인하 조치 직후 精油5社가 각일간지에 게재한 企業이미지 광고 文案이다.

이 신문광고를 보고 一般石油消費者들은 상당히 의아해 했을 것이다. 우선 비싼 광고비를 들여 각일간지마다 광고를 게재한 동기도 의심스러웠을 것이고, 더우기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인근의 경쟁국보다 훨씬 싸다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선뜻 수긍하는 소비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석유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외국에 비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다. (株)油公이 '87년에 한국궤철조사연구소를 통하여 전국의 만20세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총조사대상자중 68.7%가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외국에 비해 비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 현재 우리나라의 石油價格은 외국에 비해서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단위 : %)

비싸다	비슷하다	싸다	모름 / 무응답	계
68.7	18.3	5.5	7.5	100.0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름값은 과연 비싼가?

'88년 7월 현재의 우리나라 기름값을 세계 각국과 비교해 보면, 등유와 경유는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B-C油는 極東3국 중에는 가장 싼 편이나 歐美 5개국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편이다. 반면 휘발유는 日本, 英國, 프랑스, 이탈리아보다는 다소 싸나 美

國에 비해서는 아직도 2배 정도 비싼 수준이다.

그러나 國內 石油需要의 주종을 이루는 輕油와 B-C油 (양제품이 국내수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임)는 외국에 비해 아주 저렴한 편이므로 전체적으로 국내 기름값이 외국보다 높다고는 결코 할 수 없다.

세계각국의 주요석유제품 소비자가격 비교
('88. 7월 현재)

(단위 : \$ / B)

	韓國	日本	台灣	美國	英國	프랑스	西獨	이탈리아
휘 발 유	91.5	137.4	88.6	40.7	101.2	126.4	80.7	151.6
등 유	41.4	43.9	60.9			50.0		75.8
경 유	40.5	82.5	58.1	40.4	93.7	86.5	77.7	80.2
B - C 유	19.8	28.0	25.2		18.0	19.0	16.9	17.2

<자료> Oil Market Trend ('88. 8)
IEA Oil Market Report('88. 8)

그러면 일반국민들은 왜 우리나라의 기름값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이는 휘발유의 價格이 외국에 비해 비싸기 때문이다. 즉 전체적으로는 싼 편이나, 휘발유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름값이 비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2. 휘발유 가격이 비싼 이유

그러면 왜 휘발유 가격이 비싼지 그 이유를 알아보자. 현재 '보통휘발유의 소비자가격(주유소 판매가격)은 1리

터당 418원이다. 이의 구성내역을 보면, 工場渡價格은 170.89원으로 소비자가격의 40.9%에 불과하나, 稅金은 208.89원으로 50%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공장도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좀더 세분해보면 공장도 가격에도 관세 등 세금이 포함되어 있어 製造原價는 25.8%에 불과하며,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제세금은 전체의 64.6%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휘발유가격이 비싼 이유는 휘발유에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 가격의 구성내역

보통휘발유 소비자 가격 : 1리 당 418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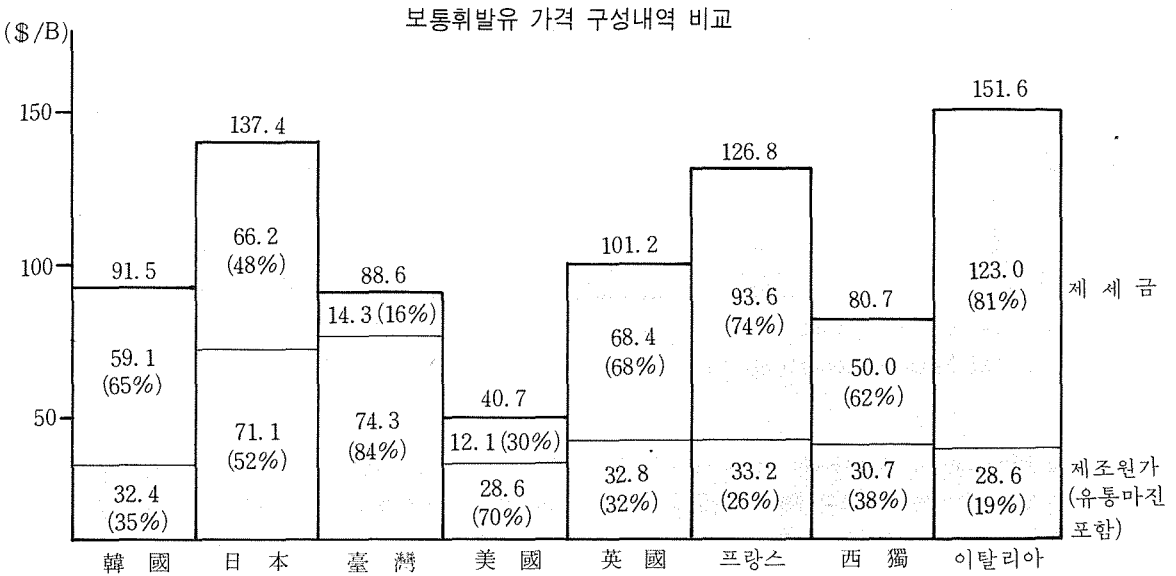
공장도 가격 170.89원 (40.9%)		세 금 208.89원 (50.0%)		유통마진 38.22원 (9.1%)	
제조원가 (25.8%)	관세 및 기금 (14.6%)	특별소비세 (40.9%)	부가가치세 (9.1%)	대리점 (4.0%)	주유소 (5.1%)

정유사 이윤
(0.5%)

세금합계 (64.6%)

이를 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유통마진을 포함한 보통휘발유의 製造原價는 배럴당 \$32.40으로, 日本, 臺灣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歐美 5개국과도 거의 동일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特別

消費稅 등 諸稅金의 수준이 휘발유 가격이 비싸냐 싸냐의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製造원가는 선진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으므로 휘발유 가격 고가의 원인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 휘발유 특수세 부과 효과 및 문제점

정부가 揮發油에 대해 高率의 特別소비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財政收入 확보

石油에 대한 소비세는 세계적으로 볼 때 단일 항목으로서 가장 중요한 소비세이며,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總稅收收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정부 재정수입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所得再分配

우리나라의 경우 휘발유는 아직도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高所得 계층에서 소비되는 물품에 高率의 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租稅體系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다.

(3) 에너지 소비 절약 유도

우리나라는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非產油國으로서 소요 石油 全量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石油 製品中 주로 소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揮發油에 高率의 特別소비세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유도하고 있다.

(4) 經濟·社會政策手段으로의 활용

揮發油의 소비는 도로마손, 교통혼잡, 공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며 이 비용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휘발유 소비행위에 대하여 이 사회적 비용의 일부분을 직접 부과하기 위하여 特別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휘발유 특수세 부과 이유 및 긍정적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러면 휘발유 특수세의 고율부과는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① 石油製品 油種間 가격구조의 歪曲

국제현물시장에서 휘발유는 경유보다 오히려 싼 값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구미 각국에서는 경유에 비해 130%

수준의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유가격의 230%로 판매되어 석유제품 유종간 가격구조가 기형화되어 버렸다. 이에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

油種間 價格構造의 國際間 比較
(소비자가격 기준)

	휘발유	등유	경유	나프타	B-C油	LPG
韓 國	230	104	100	43	54	113
歐 美 5 개 국	132	83	100		47	
국제현물시장	91	101	100	73	70	66

및 LPG 사용 차량에 대한 투자유인을 제공하여 石油資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있다.

② 類似揮發油 유통문제

현재 보통휘발유 1리터를 주유소에서 판매할 경우 마진은 23.76원으로 판매가격 418원의 5.7%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BTX 등으로 유사휘발유를 만들 경우 그 제조원가는 리터당 약 200원 수준에 불과하며, 이를 주유소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리터당 약 200원의 마진을 향유할 수 있으므로, 유사휘발유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③ 휘발유의 사치품적 성격문제

국민생활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휘발유는 물론 사치품이었지만 승용차의 보급이 대중화된 지금에 와서는 휘발유는 사치품에서 생활필수품으로 그 성격이 변형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시대상황의 변천에 맞춰 稅制도 합리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정부의 특별소비세제 개편방안 및 문제점

정부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과 소비구조의 변화 및 경제의 대외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의 세부담에 적정화를 기한다는 취지하에 특별소비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할 것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특별소비세율 개편안에 의하면, 보석, 모피, 골프용품 등은 100%에서 25~30%로 대폭 인하하고, 모타보트, 요트, 스키용품 등도 60%에서 25~30%로 대폭 인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 TV, 승용차, 피아노, 커피 등도 세율을 소폭 인하하여 10~20%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정부의 특별소비세율 개편(안)

(단위 : %)

		품명	현행	개편안	인하폭
제1종	제1류	보석	100	30	△70
		모피	100	30	△70
	제2류	골프용품	100	25	△75
제2종	냉장고(소형기준)		28	15	△13
	전기세탁기		40	20	△20

		품명	현행	개편안	인하폭
		TV(컬러 소형)	28	15	△13
		승용차(1,500cc이하)	15	10	△ 5
		모타보트·요트(대형)	60	30	△30
		피아노(그랜드형)	30	20	△10
		VTR	40	25	△15
		스키용품	60	25	△35
제3종		커피	40	20	△20
		청량음료	20	10	△10
제4종	제2류	취발유	100	100	-
		경 유	10	10	-
		LPG	10	10	-

그러나 石油製品인 揮發油, 輕油, LPG 만은 현행의 稅率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政府가 보석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의 대폭 인하를 검토하며 제시한 이유는 이들 제품이 국민소득향상으로 더이상 사치품으로서의 의미가 상실되었으며 밀수, 암거래 등의 脫稅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石油製品에 대해서 만든 稅收確保를 위해 인하할 수 없다는 立場을 취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 인하가 누락된 것은 취발유(100%) 등 석유제품과 터키탕(100%) 및 경마장(50%) 입장세 뿐이며, 이에 따라 100%의 특별소비세율을 징수하는 것은 취발유와 터키탕 입장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율이 10~30%수준이며 평균세율도 15~20%에 불과한 실정이다.

5. 맺는말

政府는 類似揮發油의 유통근절을 위해 지난 '85년 이후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배상제도도 실시하여 현재 약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유사취발유의 유통은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금액의 특별소비세액이 탈세되고 있다.

이와같이 유사취발유가 아직도 유통되는 가장 큰 이유는 취발유에 10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資本主義經濟下에서 정부가 행정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정책은 순리를 따라야 한다. 특별소비세율이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세율의 인하로만 해결할 수 있지, 행정력 사용은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보석, 모피,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인하도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揮發油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인하도 이들 제품 못지않게 꼭 필요한 것이다.

정부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기대한다. ☐

